

## 문학교육에서 『무정』의 정전화 연구\* - 2차 교육과정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교재화를 중심으로 -

정진석\*\*

###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문학교육이 실천한 『무정』의 정전화 과정을 밝히고 교육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정』이 중등학교 교과서에 처음 수록된 2차 교육과정부터 학습의 대상이 되지 못한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변천 과정을 살피고 정전화의 논리를 재구하였다.

『무정』은 문학사의 차원에서 최초의 근대적 장편 소설이지만 문학교육의 차원에서는 가장 오래된 정전이다. 현대소설의 어떤 작품보다도 가장 '앞선 시기'에 '지속적으로' '다수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읽혔다. 그만큼 학습 목표, 작품 해석, 수록 범위, 학습 활동 등과 관련된 교재화의 양상이 시기마다 상이하다. 2·3차 교육과정기 고전 문학사를 다루는 고등학교 선택 과목 <고전>의 교과서에 처음 실린 『무정』은 4차 교육과정에 와서 전래의 소설과는 구분되는 '최초의 근대적 장편 소설'로 규정되면서 6차 교육과정까지 정전의 위상을 확립해간다. 7차 교육과정부터 『무정』은 대중소설의 면모를 조명 받으며 교육 내용의 지평을 확장하지만 교육 정전의 위상은 흔들린다.

『무정』의 정전화에 대한 사적 고찰을 통해 확인된 문학교육의 성과와 한계는 『무정』 교육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문학사 교육과 관련하여, 학습자가 문학사적 안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무정』

\* 2016년도 강원대학교 대학회계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음(관리번호-520160522)

\*\*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을 다른 작품과 비교하면서 현실 인식의 차원이나 문체적 차원의 연속성을 탐구하고 이해하게 해야 한다는 것, 둘째, ‘문학과 매체’ 관련 성취기준과 관련하여, 『무정』의 소통 현상과 문체 선택의 관계를 탐구하게 함으로써 『무정』의 매체적 특성을 기호론과 소통론 양면에서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셋째, 문학 교실에서 특정 연재분이 아닌 장편소설 『무정』 전체를 풍성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이광수, 무정, 정전, 교재화, 문학교육, 문학사, 매체적 이해

## 목차

1. 문제제기
2. 과도기 소설 『무정』과 계몽적 성격의 비판
3. 근대 문학의 기원 『무정』과 이념적 성격의 탐구
4. 신문연재소설 『무정』과 대중성의 매체적 접근
5. 시사점

## 1. 문제제기

정전은 일반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류에게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한 위대한 작품”으로 인식된다.<sup>1)</sup> 정전에는 한 사회가 이상화하는 ‘위대한 행위’와 ‘좋은 삶’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으며 공동체는 이러한 정전을 바탕으로 문화적 정체성을 정립하고 확장한다. 이때 문학교육은 정전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성원과 공유하는 강력한 제도이다. 문학교육은 제재의 선별과 지속적인 수록을 통해 정전의 구성에 개입하며 이러한 정전을 학습 목표와 활동, 해설

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1999, 680면.

의 체계에 배치함으로써 해석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학습자는 문학교육의 정전을 섭렵하면서 좋은 소설과 해석에 대한 안목과 감수성을 형성한다. 여기에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윤리적 탐구도 포함된다.

그런데 정전의 구성은 공동체의 이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기도 한다. 정전은 공동체가 선택하고 승인한 작품이다. 이러한 선택과 승인에는 특정한 이념이 개입하며 그 이면에는 배제와 은폐의 논리가 작동한다. 정전이 남성 중심적, 서구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여성 작가와 3세계권 작가의 작품이 배제되고 있다는 오랜 비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연원한다. 이른바 정전 해체론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시각은 우리의 문학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문학교육이 교과서를 기반으로 구성한 정전의 목록은 반공주의, 민족주의, 순문학주의가 작용한 결과이다.<sup>2)</sup> 정전은 문화 재생산의 주요 제도이며 정전의 섭렵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자연화 과정이다.

정전 해체론은 문학교육의 정치성을 전제로 주류 정전을 해체하고 대안 정전의 생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논의가 환원주의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점이다. 이들 논의는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이념을 결정적 변수로 상정하면서 정전화의 양상을 반공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 순문학 계열 등 범주별로 분석한다. 이러한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은 개별 작품의 정전화가 보인 특성을 특정 이념의 실천으로 환원한다. 하지만 같은 계열의 작품들이 보이는 정전화에는 공통점만큼이나 차이점도 두드러진다. 공동체의 이념은 정전화의 중요 요소이지만 이념과 작품 간

2) 정재찬, 『현대시 교육의 지배적 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논문, 1996.; 차혜영, 『한국 현대소설의 정전화 과정 연구 -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와 지배 이데올로기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18, 돈암어문학회, 2005, 157-181면.

의 관계가 정전화의 모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학교육에서 개별 작품은 문학론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는 한편, 문학교육의 목적,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학습자의 수준 등을 고려하면서 교과서의 제재로 전환된다. 또한 이러한 교재화는 작품에 대한 연구 성과의 축적, 문학교육 담론의 확장과 맞물리면서 수정·보완되는 등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정전에 대한 기존의 거시적 접근은 개별 작품의 차별적인 정전화 양상을 포착하는 데 실패하였다. 또한 이념 중심의 추상적 접근은 정전을 둘러싼 선택과 배제의 논리에만 주목함으로써 정전이 교육 공동체의 숙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게 한다. 개별 작품을 대상으로 정전화의 맥락과 양상이 변화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추적하면서 그 성과와 한계를 섬세하게 논의하는 미시적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sup>3)</sup>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무정』에 대한 문학교육의 정전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무정』은 1917년 1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일신보』에 총 126회가 연재된 장편 소설로, 한국 근대문학사의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다. 『무정』은 흔히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장편 소설’, ‘한국 근대문학의 기원’으로 평가되는데, 이러한 위상은 연재 당시부터 시작된 비평과 연구의 축적과 무관하지 않다. 연재와 맞물려 양건식의 「『무정』을 독하고」(『매일신보』, 1917.5.9.~10.), 김기전의 「『무정』 122회를 독하다가」(『매일신보』, 1917.6.15.) 등의 현장 비평이 제출될 정도로 화제와

3) 개별 작가 및 작품 단위에서 정전화의 통시적 과정을 세밀하게 추적하는 미시적 접근과 관련하여 최근 몇몇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김동환, 「교과서 속의 이야기 기문, 김유정」, 김유정학회 편, 『김유정의 귀환』, 소명출판, 2012, 35-54면.; 김지혜, 「김유정 문학의 교과서 정전화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51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135-155면.; 김근호, 「이태준 소설의 서사 윤리와 소설교육」, 『현대소설연구』54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41-81면.; 정진석, 「소설교육에서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정전화 양상과 개선 방향」, 『문학교육학』46, 한국문학교육학회, 2015, 81-101면.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이후 이 ‘새로운 소설’은 오늘날까지 문학사적 성과와 한계에 대한 논란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시각에서 읽히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무정』이 문학교육의 차원에서 제재로 선택되고 교육한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핀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무정』이 교과서의 제재로 처음 선정된 것은 발표 이후 50년이 지난 1968년의 일로 2차 교육과정이다. 이 시기 아홉 종의 『고전』 교과서 중 단 한 종에서만 실렸던 『무정』은 교육과정이 개정될수록 다수의 교과서에서 제재로 선택되어 5차 교육과정에 이르러서는 여덟 종의 『문학』 교과서 중 여섯 종에 수록될 만큼 정전의 위상을 확고하게 확립한다. 이후 『무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 제재 목록에 오르지만 2015년부터 사용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학』 교과서에서는 더 이상 학습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sup>4)</sup> 이처럼 『무정』은 현대적 국어교육이 시작된 1차 교육과정 이래 현대소설의 그 어떤 작품보다도 ‘앞선 시기에’ ‘지속적으로’ ‘다수의 교과서’를 통해 읽힌 작품이며 교재화 이후 50년의 기간만큼 정전화의 양상은 역동적이며 다채롭다.

이와 관련하여 『무정』의 교재화를 다룬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박상근의 연구가 대표적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제시된 『무정』의 수록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sup>5)</sup> 이 연구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문학과 매체’ 및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단원에서 읽힌 『무정』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활동의 자료로만 활용된 점에 주목하면서 정전으로서 『무

4) 교육과정이 수시 개정 체제로 전환된 이후 교육과정의 명칭에 대한 혼란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정이 첫 고시된 시점을 명칭의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국어과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국어과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으로 지칭한다.

5) 박상근, 『교과서를 통해 본 〈무정〉 교육 연구』, 『문학교육학』 51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16, 49-80면.

정』의 위상 저하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무정』에 대한 문학교육의 수용 시점을 ‘7차 교육과정 이후’로 오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석 대상을 최근의 교육과정에 한정된 한계가 있다. 상술한 것처럼, 2차 교육과정부터 7차 교육과정까지는 『무정』이 교과서에 거듭 수록되었고 교재화의 심화를 통해 정전의 위상을 강화한 시기이다. 『무정』에 대한 문학교육의 정전화가 지닌 의미는 통시적 차원에서 그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다.<sup>6)</sup>

이 연구는 『무정』의 정전화 과정을 고찰하기 위해 2차 교육과정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교육과정 및 <문학> 교과서를 자료로 삼아 『무정』의 교재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sup>7)</sup> 개별 작품의 정전화에서 문학교육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기반으로 학습자에게 선별된 작품에 대한 특정한

6) 한편, 『무정』의 다양한 특성에 주목하면서 교육의 가치와 방향을 밝힌 논의들도 있다. ‘구성의 미비’, ‘속물적 여성관’, ‘피상적 민족주의’를 근거로 『무정』의 문학교육적 가치를 절하하는 논의가 있는 반면, 『무정』을 계몽주의에 속박한 기존의 교재화 방식을 비판하면서 연애 서사로서의 『무정』을 주목하고 교재화할 것을 제안한 논의, 전근대적 서술로 비판받은 126회 연재분에 대한 다시 읽기를 통해 수록 제재로서의 가치를 새롭게 모색한 논의 등이 대표적이다. 『무정』에 대한 문학교육의 정전화 과정을 재구하는 것은 이러한 선행 연구의 실천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방용호, 『文學教育 텍스트로서의 李光洙 小說 研究 - 『無情』과 『開拓者』를 中心으로』, 『인하교육연구』8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02, 203-225면.; 김성진, 『소설교육에서 해석의 다양성 문제 재론』, 『우리말글』42호, 우리말글학회, 2008, 155-180면.; 최성윤, 『『무정』 후 일단의 소설 교육적 가치』, 『Journal of Korean Culture』23,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3, 77-102면.

7) 『무정』에 대한 문학교육의 정전화에서 특징적인 것 중 하나는 『무정』이 줄곧 고등학교 선택 과목 중 하나인 <문학>의 교과서에 수록되었다는 점이다. <문학> 이외의 교과서에 실린 사례는 두 번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중 한 종(천재교육)에 실린 것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선택 과목인 <독서와 문법> 교과서 중 한 종(지학사)에 실린 것으로, 이 두 사례는 모두 <문학> 성취기준이 아닌 <독서> 성취기준을 실행한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이 연구는 『무정』의 교재화를 <문학> 교과서로 한정하였다.

읽기를 견인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교재화는 개별 작품이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연계되면서 국정 및 검정 교과서의 교육적 기획과 실천의 체계에 배치됨을 의미한다.<sup>8)</sup> 구체적으로, 첫째, 학습 목표의 차원에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관련을 맺으며, 둘째, 지식의 차원에서 작품 해설을 통해 작품의 해석 방향을 견인하며, 셋째, 경험의 차원에서 수록 부분을 통해 작품의 특정 부분을 선택적으로 주목하게 하며, 넷째, 수행의 차원에서 학습 활동을 통해 작품의 이해를 특정한 방향으로 확장한다. 이상의 층위를 활용하여 이 연구는 『무정』의 교재화 양상을 분석한 후 정전화의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별 특성과 의의를 밝힐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무정』 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안할 것이다.

## 2. 과도기 소설 『무정』과 계몽적 성격의 비판 : 2·3차 교육과정기의 예외적 수용

『무정』이 문학교육의 제재로 처음 등장한 시기는 2차 교육과정기이다. 2차 교육과정에는 고등학교 국어의 심화 과목으로 <고전 과정>이 설치되었는데 이를 실행한 문학 교과서 중 박영사의 『우리 고전』(박병채, 1968)에 『무정』의 일부가 실려 있다. 흥미로운 점은 『무정』에 대한 국문학계의 높은 관심과 평가에 비춰 볼 때 이 시기 『무정』의 교과서 수록은 상당히 예외적이었다는 점이다. 사실 『무정』은 이 시기 아홉 종의 문학 교과서 중 단 한 종에만 실린 것이고 이는 『고전』이라는 이름으로 다섯 종의 교과서가 발행된 3차 교육과정기에도 마찬가지였다. 교과서에 실리기는 했지만 제재로서의 가치

8) 김근호, 앞의 글, 46면.

를 폭넓게 인정받지는 못한 셈이다.

교육과정	교과서	출판사 (대표 저자)	단원	수록 연재분
2차	우리 고전	박영사 (박병채)	Ⅲ. 개화기의 국어와 문학 4. 육당과 춘원 초기의 문학	126
3차	고전	고려서적주식회사 (박성의)	Ⅳ. 신문학 7. 육당과 춘원의 문학	126

〔표 1〕 2·3차 교육과정기 『무정』의 교과서 수록 현황

이러한 양상은 일차적으로 당시 문학교육의 지향점이나 작품 수록의 경향에서 비롯한 바가 크다. 2차 교육과정기 국어교육계가 지향한 문학교육의 목표는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과 창조’였다.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문학교육의 목표로 설정했던 교수 요목기와 비교되는데, 교육 목표의 이러한 축소는 교과서의 제재에서 현대 문학을 줄이고 고전 문학을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된다.<sup>9)</sup>

한편 교수요목기부터 교과서의 제재로 시의 비중을 높인 국어교육계의 장르적 선호는 이 시기에도 계속되었다. 물론 교과서의 제한된 지면과 작품의 길이 등의 조건을 고려하면 소설보다는 시가 더 많이 실릴 수밖에 없지만 시 장르의 집중은 이 시기에 특히 두드러진 현상이다. 이는 한편으로 해방 공간의 시적 현실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수요목기에 실린 현대 소설 대부분이 정전의 위상을 획득하는 데 실패한 탓도 있다.<sup>10)</sup> 이처럼 고전 문학의 강화와 시 장르의 집중이라는 제재 수록의 경향은 ‘현대’ ‘소설’의 입

9) 남민우, 『문학교육 목표 변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고등학교 문학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22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131-136면.

10) 김윤식, 『해방 공간의 시적 현실』, 『한국현대문학사론』, 한샘, 1988, 216면.; 조희정, 『교과서 수록 현대 문학 제재 변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24권, 국어교육학회, 467-468면.



지를 크게 줄이는데 2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즉 『국어 I』, 『국어 II』, 『국어 III』에는 심훈의 『상록수』와 알퐁스 도데의 『별』만이 실린다.

게다가 이 시기 국어와 함께 문학 제재가 실릴 수 있었던 고등학교의 심화 과목은 <고전 과정>으로, 이 과목의 목표는 “기본적이고 출전이 확실한 고전 문학을 독해 감상시켜, 국어와 국문학의 변천 및 현대 언어와 문학과와의 관련성을 알림으로써, 민족 문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sup>11)</sup> 비록 ‘현대 문학과와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를 언급하고 있지만 지도 내용이 “고전의 시대적 대표 작품을 읽혀 국어와 국문학 발전의 모습을 알린다”라는 점에서 고전 문학의 제재 읽기가 중심이다.<sup>12)</sup> 실제 <고전 과정>을 편찬한 9종의 교과서는 모두 시대를 기준으로 목차를 구성하고 있는데 대체로 그 시작 시기는 ‘삼국 시대’이며 마지막 시기는 ‘조선 후기’ 또는 ‘개화기’이다. ‘무정’을 비롯한 현대 문학의 제재가 실릴 수 있는 체제가 아닌 것이다. 이처럼 문학교육의 지향점, 작품 수록의 경향, 심화 과목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이 시기 『무정』의 교재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단 한 종의 교과서에만 수록되었는가’보다는 ‘어떻게 이 시기에 수록될 수 있었는가’가 보다 적합한 질문일 것이다.

『무정』의 이러한 예외적 수록에는 『무정』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가 그 중심에 놓여 있다. 『무정』은 발표된 직후부터 작품론의 대상이 되었고 다양한 평가가 개진되었는데 초기에는 ‘전래의 소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신문학의 출발’로 고평되었지만 점차 ‘개화 공간의 말미에 놓인 신소설의 일종’으로 그 위상을 달리 평가되기도 하였다.<sup>13)</sup> 이러한 논란은 <고전 과정>의 교과서들이 출판된 1960년대

11) 교육부, 『초·중·고등학교 국어과·한문과 교육과정 기준(1946~1997)』, 선명인쇄주식회사, 2002, 343면.

12) 위의 책, 344면.

13) 전자에는 최남선의 다음과 같은 평가가 대표적이다. “『無情』은 그첫소리보다 등

후반에도 초점을 달리하며 계속된다. 한편에서는 근대적 개인의 개성과 각성, 자유연애의 문제, 언문일치의 문장 등을 이유로 『무정』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소설’로 자리매김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고전소설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신소설의 성격이 보다 강한 ‘과도기적 소설’로 평가한다.<sup>14)</sup>

『무정』의 문학사적 위상에 대한 이러한 이견은 『무정』의 교재화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무정』을 근대 문학의 출발로 인식한다면 문학사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고전 과정>의 교과서 제재로 선택하기 어렵다. 하지만 『무정』을 근대 이전의 과도기적 소설로 본다면 고전 문학의 마지막 제재로 수록할 여지가 생긴다. 『무정』은 바로 이 후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교과서의 제재로 처음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단 한 종의 교과서에 실렸다는 사실은 이러한 인식이 당시 국어교육계의 예외적인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무정』을 과도기적 소설로 보는 인식은 교재화의 양상에도 영향

둥거리는 이 울림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의 엄이 눈뜨는귀별이며 생각엿 살림이 신날 꼬는 귀별이며 오래오래 문지안즌 박달의 글월이 새 빛출내며 새 치부책장을 넘김이로다 모랫밭가튼 우리 쌍에는 외로워도 큰 샘터요 무겁게 싸힌 우리 귀에는 훗치라도 큰 「하모니」되려든 하물며 외배란 북은 짜리치 아니하야도 저 절로 울며 한번울기 비롯하면 다시 그칠줄 모름이랴(최남선, 「『無情』序」, 『청춘』 제15호, 1918, 7면.) 후자의 대표적인 견해로는 임화의 평가를 들 수 있다. “춘원의 문학은 위선 그 자신이 소위 발아기를 독점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이해조, 이인직으로부터의 진화의 결과이고 동시에 동인, 상성, 빙허 등의 자연주의문학에의 일 매개적 계기였다는 변증법(진실로 초보적인!)의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다음에는 그의 사회적 역사적 의의를 구체적 현실과의 의존 관계의 법칙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중략)이 모든 조건을 춘원의 이인직에 대한 문학적 우월이란 것을 심히 조건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이인직의 구시대 문학에 대한 관계에 비하여 춘원의 이인직에 대한 그것은 상대적으로 보아 전자에 뒤진다는 것이다. 이것들이 모두 현재한 저 『무정』이란 소설을 볼 제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근대 문학의 형태를 갖춘 예술 작품으로서 평가하기에 약간의 주저를 삽입케 하는 점이다.”(임화, 『조선신문학사론서설』, 임규찬 편, 『문학사: 임화문학예술전집 2』, 소명출판, 2009, 390-391면.)

14) 1960년대 『무정』을 바라보는 시각의 분화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황정현, 「이광수 소설 연구사」, 고려대학교 박사 논문, 2009, 92-104면.

을 미친다. 2차 교육과정기 박영사의 『우리 고전』은 ‘국어와 국문학의 의의’, ‘국문학사의 시대 구분과 그 특징’을 다루는 ‘I. 서론’부터 ‘현화가’, ‘찬기과랑가’를 수록한 ‘VI. 통일 신라·삼국 시대 및 그 이전의 국어와 문학’까지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무정』은 ‘Ⅲ. 개화기의 국어와 문학’에 실려 있다.

(가) 그의 작품은 형식적으로는 신소설의 계통을 이었으나,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완전한 언문 일치의 글을 썼다. 내용적으로 보면 권선징악(勸善懲惡)을 벗어나서 봉건 사상을 타파하고 개인주의 사상을 그 문학 속에 수렴하였다. 그러나, 그의 초기 문학은 아직 참된 현대 문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계몽주의적이었다고 하겠다.<sup>15)</sup>

(가)에서는 『무정』을 비롯한 이광수 초기 문학의 특성으로 첫째, 형식적으로 신소설을 계승했다는 점, 둘째, 완전한 언문일치를 실현했다는 점, 셋째, 봉건사상의 타파와 개인주의적 사상을 지향했다는 점, 넷째, 계몽주의적 성격이 과했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지식은 『무정』을 읽은 후 제시되는 ‘연구 문제’의 “3. 이 소설의 문학사적 의의를 생각하여 보자.”를 통해 다시 강조된다. 주목할 점은 이광수 문학의 계몽적 목소리를 근거로 그의 작품들을 과도기적 작품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의 초기 문학은 아직 참된 현대 문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계몽주의적”이라는 비판은 『무정』의 문학사적 위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무정』의 반소설적 또는 전근대적 특성으로 중요하게 거론된 내용이다.<sup>16)</sup>

15) 박병채, 『우리 고전』, 박영사, 1968, 27-28면.

16) 이러한 비판의 기원에는 김동인이 있다. 김동인은 『조선근대소설고』에서 이광수의 계몽성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춘원에는 상반되는 두 가지 욕구가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은 감출 수 없는 사실이다. ‘미(美)’를 동경하는 마음과 ‘선(善)’을 좇으려는 바람이다.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욕구의 갈등! 악귀(惡鬼)와 신(神)의

『무정』의 과도한 계몽적 성격을 한계로 지적하면서 과도기적 소설로 자리매김하는 이러한 기술은 수록 부분의 선정과도 관련이 깊다. 2차 교육과정기 박영사의 『우리 고전』과 3차 교육과정기 고려서적주식회사의 『고전』은 모두 『무정』의 후일담이라고 불리는 126회 연재분만을 싣고 있다. 이 부분은 『무정』에 대한 연구나 비평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으며 교재화하는 경우도 이후에는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특징적인 현상이다.

그렇다면 126회를 수록 부분으로 선택한 이유가 중요할 터인데 이는 『무정』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위상을 근거로 추론할 수 있다. 126회는 형식, 선형, 병욱, 영채의 도미(渡美)와 도일(渡日) 이후 그들의 귀국 소식을 시작으로 작중 인물들의 행로를 소개하고 조선의 미래를 낙관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문제는 126회의 후일담 형식과 서술자의 과도한 논평이 작품의 완결성과 근대성 차원의 결합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김동인의 논평이 대표적인데, 그는 『춘원연구』에서 “제126절은 사족”이라고 단정하면서 “신파비극의 대단원과 같은 느낌을 줄 뿐 소설적 효과를 조금도 더 돕지를 못하고 도리어 우습게 만든 데 지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정』은 무정하게도 말미가 몽롱하게 끝이 났다”고 비판한다.<sup>17)</sup>

문학 교과서의 제재로 126회를 선택한 저간에는 이러한 비판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교과서의 작품 해설에는 『무정』의 새로움과

---

경쟁, 춘원에게 재(在)하여 있는 악마적(惡魔的) 미에의 욕구와 의식적으로 (오히려 억지로) 흥기(興起)시키는 선에 대한 동경, (중략) 이원적(二元的) 번민(煩悶)! 그의 작품에서 미에 대한 동경만을 발견할 때에는, 우리는 언제나 동시에 예술의 진수(眞粹)를 발견한다. 그러나 그가 정신을 차리고 그 위에 선에 도금을 할 때에는, 거기 남는 것은 모순과 자가당착(自家撞着)밖에는 없다. ‘무정’에서 ‘형식’으로 하여금 영채를 버리고 선형에게 가게 한 것도 춘원의 그 위선적 성격의 산물이다. 그만큼 형식을 그리워하던 영채가 마지막에 형식을 무시하여 버린 것은 이 때문이다.”(김동인, 『조선근대소설고』, 『김동인전집 6』, 삼중당, 1976, 151면.)

17) 김동인, 『춘원연구』, 김치홍 편, 『김동인 평론 전집』, 삼명사, 1984, 106면.

한계를 동시에 기술하고 있지만 그 방점은 어디까지나 후자에 있다. 126회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참된 현대 문학이 될 수 없는 지나친 계몽적 성격”과 이로 인한 형식적 미흡함이며 이러한 교재화에서 학습자는 ‘『무정』은 근대 이전의 과도기적 소설’이라는 인식을 형성하고 강화한다.

### 3. 근대 문학의 기원 『무정』과 이념적 성격의 탐구 : 4-6차 교육과정기의 정전 위상 확립

이전 시기 <고전 과정>에서 한 종의 교과서에서만 수록된 『무정』의 교재화 양상은 4차 교육과정 이후 양적·질적 변화를 보인다. 일단 양적 변화가 눈에 띄는데 『무정』은 4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어의 선택 과목인 『현대문학』의 5종 교과서 중 3종에서 수록된다. 이러한 확장은 교육과정의 개정을 거치면서 지속된다. 5차 교육과정에는 선택 과목 『문학』의 8종 교과서 중 6종에서, 6차 교육과정에는 선택 과목 『문학(상), (하)』의 18종 교과서 중 11종에서 『무정』을 수록한다. 『무정』은 수록의 지속성과 비중의 측면에서 정전의 위상을 확립한 것이다.

교육과정	교과서	출판사 (대표 저자)	단원	수록 연재분
4차	현대문학	금성교과서 (구인환)	Ⅱ.소설 문학의 세계 1. 소설의 특성과 그 분류	122~125
4차	현대문학	동아출판사 (김일규)	Ⅳ. 소설 1. 계몽의 햇불	124~126
4차	현대문학	이우출판사 (문덕수)	Ⅲ.허구와 진실 1. 소설의 특성과 갈래	123~125

5차	문학	한샘교과서 (구인환)	III. 한국 문학의 특성과 전통성 3. 한국 문학의 전통적 흐름	124, 125
5차	문학	학습개발 (김용직)	II. 문학 작품의 분석과 이해 2. 소설 작품의 분석과 이해	125
5차	문학	한샘 (김윤식)	IV. 한국 문학의 흐름과 감상 6. 현대 문학의 주체적 정립	123, 124
5차	문학	한샘 (김홍규)	IV. 서사의 허구와 진실 2. 서사 문학과 인물	81, 82
5차	문학	금성교과서 (박동규)	IV. 소설의 이해 3. 현대소설의 특성과 분류	124, 125
5차	문학	동아출판사 우한용)	III. 작품 세계와의 만남 4. 개화와 계몽의 시대 정신	124, 125
6차	문학(상)	동아 (우한용)	III. 한국 문학의 흐름 3. 일제 강점기의 문학	124~126
6차	문학(하)	한샘출판(주) (구인환)	III.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2) 5. 근대의 문학	124, 125
6차	문학(하)	교학사 (김대행)	VII. 한국 문학의 역사적 흐름 5. 민족 문학의 주체적 정립과 발전	86, 89
6차	문학(하)	한샘출판(주) (김윤식)	V. 한국 문학의 흐름과 감상(2) 1. 전환기에서의 저항과 창조	123, 124
6차	문학(하)	동아서적 (남미영)	VI. 현대 문학의 형성과 전개 2. 현대소설의 등장	123, 124
6차	문학(상)	금성교과서 (박경신)	IV. 서사 문학의 이해 1. 소설의 특성과 갈래	123, 124
6차	문학(상)	학문사 (성기조)	II.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 2. 소설 문학의 이해와 감상	124, 125
6차	문학(하)	노벨문화사 (윤병로)	III. 문학과 현실 1. 삶의 총체적 모습	124, 125
6차	문학(하)	선영사 (이문규)	III. 한국 문학의 흐름 6. 현대 문학의 정립	2, 3
6차	문학(상)	대한교과서 (최동호)	III. 허구와 진실의 서사 문학 1. 소설의 본질과 특성	123~125
6차	문학(하)	대한교과서 (한계진)	II. 문학과 역사 2. 세월의 파도를 넘어	124, 125

〔표 2〕 4-6차 교육과정기 『무정』의 교과서 수록 현황

『무정』이 정전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두 가지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문학사 연구의 차원에서 『무정』을 근대 문학의 출발로 평가하는 인식이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무정』의 문학적 가치는 이 작품이 발표된 이래, 비평사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무정』의 문학사적 가치는 1960년대를 거치면서 ‘최초의 근대적 장편 소설’로 정리된다. 예를 들어 백철은 이광수를 “우리나라 신문학을 처음으로 만든 선구적 작가”로 규정한 후 『무정』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장편소설”로 평가하였으며<sup>18)</sup> 조운제는 “國文學 特히 小說文學界에 던지 波動은 이만 저만한 것이 아니었”을 정도로 “小說文學에 一大 革命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는 作品”으로 고평한다.<sup>19)</sup> 조연현 또한 완전한 언문일치 문장, 취재의 현실성, 근대적 자아의 각성과 개성의 표현, 사상적 혁명성 등을 이유로 “『無情』을 이 무렵의 한국 최초의 近代小說을 代表한다”고 단언한다.<sup>20)</sup> 『무정』을 전래의 소설과 차별되는 근대 문학의 출발로 보는 이러한 시각은, 분석과 평가에서 세부적 내용은 다르지만, 1970년대 김윤식·김현의 『한국문학사』, 1980년대 구인환, 김상태, 김정자 등의 다수 연구에서도 유지되고 확장된다. 이러한 문학사적 평가는 문학 교과서가 『무정』을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수록하며 그 비중을 확대할 수 있었던 강력한 근거가 된다.

둘째, 문학교육의 차원에서 현대문학의 비중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3차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 국어의 선택 과목은 <고전>과 <작문>뿐이었지만 4차 교육과정부터 <현대 문학>과 <문법>이 추가된다. 이 중 <현대문학>의 신설은 이전까지 <국어> 및 <고전> 영역에서 소

18) 이병기·백철,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57, 269면. 이러한 백철의 견해는 1947년에 출간한 『신문학사조사』에서 『무정』을 ‘본격적인 신문학이기보다는 과도기적 문학’이라고 평가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19) 조운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63, 397면.

20) 조연현, 『한국문학의 현장: 조연현 문학전집 5』, 어문각, 1977, 126면.

의된 현대 문학의 다수 작품이 교과서의 제재로 수용되는 계기가 된다. 게다가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다양한 성취기준 중 “한국 현대 문학의 성립과 그 발달 과정을 개괄적으로 이해한다”(4차 교육과정), “한국 문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안다”(5차 교육과정), “한국 문학의 사적 전개 과정을 이해한다”(6차 교육과정) 등 문학사 관련 성취기준을 비중 있게 실행하였다. 그 결과 문학 교과서는 문학사 단원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시대를 비교적 세밀하게 나눌 수 있었는데 개화기부터 해방 이전까지의 시기 또한 두 시기로 나뉘어 두 개의 단원에 제시되었다. 이는 『무정』이 『혈의 누』, 『만세전』, 『메밀꽃 필 무렵』, 『태평천하』 등과 함께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수록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이 시기 『무정』의 교재화에서는 양적인 확대와 함께 교육 내용이 심화되는 질적 차원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 일단 지식의 차원에서 『무정』을 최초의 근대적 장편 소설로 규정하는 기술이 작품 해설의 중심에 놓인다.

(나) 이 작품은 신문학 운동의 선구자인 이 광수의 첫 장편 소설임과 동시에, 한국 현대 문학사상 첫 출발점을 이룬 것이기도 하다. 개화기의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봉건 시대의 낡은 도덕관을 비판하고,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을 강조하는 한편, 민족주의 사상을 고취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어 왔다. 이 작품은 세속적인 사랑의 삼각 관계에 얽힌 젊은이들이 민족주의적인 신념에 의해 승화되고, 더욱 큰 사랑의 세계에 눈뜸으로써 젊은 시절의 고뇌를 극복하는 것을 끝맺고 있다.<sup>21)</sup>

(다) 이 작품을 읽다보면 이전 시기의 소설들과는 다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선 한글 전용의 구어체와 묘사체의 사용을 들 수 있다. 문어체를 사용해 오던 관습에서 벗어나 실

21) 문덕수 외, 『현대문학』, 이우출판사, 1985, 110면.



생활에서 사용하는 구어체를 사용함으로써 현실감을 주고, 거기에 묘사가 더해짐으로써 생생한 전달 효과를 얻고 있다. 인물의 형상도 그 주된 변화의 하나이다. 선악과 악인 등으로 유형화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개성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내면 세계도 그리고 있다는 점은, 근대 소설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는 것으로 소설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sup>22)</sup>

주목할 점은 최초의 근대적 장편 소설이라는 규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무정』의 근대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무정』의 계몽적 성격을 보다 입체적으로 소개한다. 이전 시기처럼 『무정』이 봉건적 가치관의 타파, 자유 연애, 자아의 확립, 문명 개화 등 근대적 가치를 지향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러한 계몽주의가 민족주의와 결합되어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고 있다는 점, 사제 관계에 기반을 둔 교육의 방식을 통해 형상화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에 더하여 (다)처럼 한글 문체의 확립, 입체적 인물의 설정 등 형식적 차원의 새로움에 대한 설명도 추가된다.

이처럼 『무정』을 최초의 근대적 장편 소설로 규정하고 이를 다양한 층위에서 설명하는 해설의 변화는 수록 부분의 선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전 시기 문학 교과서에서 『무정』을 대표한 연재분은 126회였지만 4차 교육과정부터 이 부분은 전혀 실리지 않는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이형식을 비롯한 네 청년이 민족의 현실에 눈을 뜨고 교육을 통한 민족의 구원을 다짐하는 124, 125회이다. 이 연재분은 이미 김기전, 김동인의 초기 비평에서 고평된 장면이며 이후의 『무정』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인용된다. 이는 이 장면이 삼량진의 수재민을 구호하는 사건을 통해 계몽주의와 민족주의가 집약적으로 표

22) 김대행 외, 『문학(하)』, 교학사, 1996, 236면.

출된다는 점, 이형식, 박영채, 김선형의 갈등이 계몽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을 통해 해소된다는 점, 『무정』의 중심 구조인 사제 관계가 개인과 민족의 운명으로서 압도적으로 표출된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러한 특성은 이 부분을 교과서의 수록 부분으로 선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교과서에서도 이 부분을 “작가의 민족 계몽적 성격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소설의 재미를 위하여 설정한 연애 사건과 민족 계몽의 주제가 함께 배합되어, 이광수 소설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거나 “김동인이 『무정』 전체에서 가장 높이 평가한 부분으로 구성상 대단원에 해당한다. (중략) 작품을 이끌어 온 삼각 관계를, 작가는 이형식이 마치 교사처럼 영채와 선형을 깨우치고, 또 두 사람은 남녀 사이의 애정 문제보다 더 크고 절박한 민족 현실에 눈 뜨게 되는 것으로 해소시키고 있다. 세 사람의 관계가 애정 갈등에서 동지적 유대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sup>23)</sup> 이 부분을 통해 『무정』의 근대적 성격을 학습자가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편 이 시기에는 수록 연재분의 다변화도 눈에 띈다. 124, 125회의 수록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5차 교육과정에는 81, 82회를, 6차 교육과정에는 2, 3회와 86, 89회를 제재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중 86, 89회는 기차에서 영채를 우연히 만난 병욱이 영채의 일부종사가 지닌 문제점을 일깨워주는 장면으로, 남녀의 수평적 관계, 사랑의 의미, 개인의 자율성 등의 근대적 가치를 사제 관계를 통해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수록 의도는 124, 125회의 수록과 크게 다르지 않다.<sup>24)</sup>

반면, 2, 3회와 81, 82회는 『무정』에 나타난 자유연애를 풍속의

23) 우한용 외, 『문학(상)』, 동아출판사, 1995, 162면.; 김윤식 외, 『문학(하)』, 한샘 출판사, 1996, 68면.

24) 이 장면은 삼량진 수해 구호의 사제 관계 이전에 가장 중요한 사제 관계이며 사제 관계가 『무정』의 구조로서 결정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평가받는다.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73-74면.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 두 부분은 공통적으로 김장로의 집에서 김장로 내외, 형식, 선형이 만나는데, 2, 3회에서 김장로는 이형식에게 선형의 영어 과외를 부탁하고 81, 82회에서 김장로는 이형식에게 선형과의 약혼을 제안한다. 김장로의 이와 같은 제안은 이형식의 삶에 중요한 변곡점일 뿐만 아니라 자유연애라는 근대적 풍속을 재현하는 계기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문학 교과서는 “위에 인용한 대목은 풍속의 측면에서 보아 당시의 독자들에게 신선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점이 그런가 밝혀 보자”,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약혼 문제에 관한 심리와 태도를 정리하여 설명해 보자.” 등의 학습활동을 제시한다. 학습자가 자유연애를 사상의 차원뿐만 아니라 풍속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에 대응하는 인물들의 과도기적 혼란에 주목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sup>25)</sup>

학습활동의 다양화 역시 이 시기의 중요한 변화이다. 이전 시기 문학 교과서에 제시된 『무정』의 학습활동은 모두 신소설과의 연관성과 차별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이 있다. 이는 이 시기의 문학교육이 ‘전통 문화에 대한 계승과 창조’를 교육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4차 교육과정<sup>26)</sup>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지향한 이래, 문학교육은 신비평, 구조주의를 배경 학문으로 삼아 “문학 작품의 유형과 그 갈래 체계의 기본 원리를 안다”처럼 문학의 요소와 체계를 학습하는 것을 교육 목표에 포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과서

25) 이러한 의도는 교과서의 다음과 같은 해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작가는 1910년대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던 풍속적 갈등의 한 단면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김 장로 내외, 목사, 이형식, 그리고 선형이 ‘신식으로’ 결혼을 약정하기 위해 주고 받는 말들은 사실상 참으로 자유롭고 자유스러운 선택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것은 ‘신식이란 다 이런 것이겠거니’하는 짐작과 각자의 심리적 동기가 얽혀서 이루어내는 기묘한 풍경이다. 이와 같은 모습을 예리하게 관찰하여 낡은 관습과 새로운 문화가 어설피게 혼합된 과도기적 삶의 양상을 선명하게 부각시킨 데에 ‘무정’의 근대 소설적 면모가 있다.”(김홍규, 『문학』, 한샘, 1990, 165-166면.)

의 학습활동은 『무정』을 통해 1910년대의 시대상과 문학적 특성을 확인하는 한편, 인물, 사건, 문체 등 소설의 요소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라) 1-1. 이 소설에 나타난 문체와 구성상의 근대적 면모를 고전 소설 및 신소설과 비교하여 검토해 보자

1-2. 작가 이광수의 전기적 사실과 작품 『무정』의 상호 관계를 조사해 보자.

2-1.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에서 작중 인물인 이형식, 박영채, 김선형의 성격에 대해 정리하고 이를 발표해 보자.

2-2. 이 작품에서 개화와 계몽을 강조하는 부분을 찾아, 그 내용을 간추려 보자.

3-1. 다음 작품들을 더 읽어 보고, 근대 소설의 형성기에 나타난 문학적 특징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3-2. 이 작품의 등장 인물들이 추구하는 이상과 견주어 자신의 진로와 삶의 계획을 이야기해 보자.<sup>26)</sup>

(마) 1. ‘무정’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1) 본문에서 인물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직접 표현법과 간접 표현법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찾아보자.

(2) 가치관과 사고의 방향이 바뀌는 인물을 두 명 찾고 그 변화의 과정을 본문에서 찾아보자.

(3) 등장 인물들 가운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가치관을 지닌 인물을 두 명 찾아보자.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를 말해 보자.

(4) 등장 인물들의 성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보자. 가) 평면적 인물, 나) 입체적 인물<sup>27)</sup>

(라)는 6차 교육과정의 문학 교과서 중 하나로, 여기에서 『무정』

26) 구인환 외, 『문학(하)』, 한샘출판(주), 1995, 217면.

27) 성기조, 『문학(상)』, 학문사, 1996, 101면.

은 'Ⅲ.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2) - 역사적 흐름에 따른 이해와 감상' 중 '5. 근대의 문학'에서 「만무방」, 「탁류」와 함께 수록된다. 대단원의 부제가 말해주듯 이 단원의 목표는 문학사의 맥락에서 『무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작품의 가치를 시대적 삶과의 관련성 및 다른 작품과의 연관성에서 해명하는 문학사의 논리에 충실하도록 여가의 학습활동도 『무정』의 근대 지향성과 계몽성에 대한 구체적 확인, 작가의 전기적 사실과의 관련성 조사, 고전소설 및 신소설과 구분되는 『무정』의 새로움 검토, 『무정』과 그 이후 작품과의 연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마)는 6차 교육과정의 문학 교과서 중 하나로, 『무정』은 'Ⅲ.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 중 '2. 소설 문학의 이해와 감상'에서 '(1) 인물과 배경'의 제재로 제시된다. 단원명이 환기하듯, 이 단원은 장르론의 차원에서 소설의 요소, 즉 인물, 사건, 배경, 서술 등을 학습하고 각각의 유형을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의 학습 활동은 이러한 목표에 충실한데, 단원의 길잡이에서 설명한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 '입체적 인물과 평면적 인물' 등을 『무정』에서 찾고 이를 기준으로 『무정』의 인물을 나누는 활동, 인물의 성격 제시 방식인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를 『무정』에서 찾는 활동 등이 대표적이다.

학습 활동의 이러한 구성은 『무정』의 근대성을 인물 유형의 창조에서 확인하는 논의에 힘입는 바가 크다. 이에 따르면, 『무정』은 주동 인물인 이형식을 고전소설의 영웅적 인물이 아닌 일상적 인물로서 형상화함으로써 또는 선형과 영채 사이에서 고뇌하는 개인적 내면을 지니되 전자를 선택하여 시대의 욕망을 대변하는 전형적 인물로 설정함으로써 근대성을 획득한다. 영채의 경우, 봉건적 가치관을 지닌 전통적 여인에서 근대적 가치관을 지향하는 신여성으로 성장한다는 점에서 입체적 인물로서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sup>28)</sup> 이러한

맥락에서 『무정』은 소설의 인물과 관련된 개념적 지식을 학습하기 위한 제재로 활용된 것이다.

#### 4. 신문연재소설 『무정』과 대중성의 매체적 접근 : 7차 - 2009 개정 교육과정기의 퇴조

교육 정전으로서 『무정』의 위상은 7차 교육과정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 6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에 발행된 문학 교과서는 18종으로 동일하지만 『무정』이 제재로 수록된 교과서는 각각 11종과 4종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수록 비중의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는데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4종으로 줄었고 2012 개정 교육과정에는 한 편도 수록되지 않는다.<sup>29)</sup> 『무정』이 <문학> 교과서의 제재에서 제외된 것은 2차 교육과정 이후 처음이다.

28) 권영민, 『한국 현대소설의 이해』, 태학사, 2006, 132면.

29) 한편, 이 시기의 <문학> 교과서는 『무정』을 본문 제재 이외에 단원의 길잡이, 단원의 마무리, 학습 활동의 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수용도 교재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학습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 500자 전후의 매우 짧은 분량이 실린다는 점, 『무정』의 퇴조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정전화 차원에서 논의하기는 어렵다. 『무정』을 자료로서 활용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교육 과정	교과서	출판사 (대표 저자)	단원	활용 방식
7차	문학(하)	민중서림 (김장원)	II.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6. 개화기 ~ 일제 강점기의 문학	문학사 설명글에서 123회 일부 인용
7차	문학(상)	대한교과서 (오세영)	I. 문학이란 무엇인가? 2. 문학의 기능	'학습활동'의 자료로 124회 일부 인용
2007 개정	문학II	비상교육 (박영민)	III.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의 흐름 2. 일제 강점기 문학	'학습활동'의 자료로 124회 일부 인용
2007 개정	문학II	신사고 (이승원)	II. 문학의 흐름 3. 개화기~일제 강점기의 문학	'단원 마무리'의 자 료로 123회 일부 인 용

교육과정	교과서	출판사 (대표 저자)	단원	수록 연재분
7차	문학(하)	두산 (우한용)	V. 문화의 변동과 문학의 대응 2. 문화의 충격과 문학의 변화	123, 124
7차	문학(하)	교학사 (구인환)	II.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 2. 한국 문학과 세계문학, 어떻게 전개되는가	124, 125
7차	문학(하)	한국교육미디어 (김병국)	V. 문화의 흐름과 문학의 양상5. 전환기의 고민과 문학적 모색	124, 125
7차	문학(하)	금성출판사 (박경신)	III 민족 문학의 흐름 5. 민족 문학의 수난기	123, 124
2007 개정	문학II	미래엔 (윤여탁)	II.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5. 근대 문학의 출발	122, 123
2007 개정	문학 I	지학사 (권영민)	2. 문학 활동의 방법 [3] 문학과 매체	111, 112
2007 개정	문학 I	천재교과서 (정재찬)	IV. 문학과 매체 1. 문학의 소통과 매체의 관계	122
2007 개정	문학II	천재문화 (고형진)	I.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01. 한국 문학의 흐름	1, 5

[표 4] 7차 - 2009 개정 교육과정기 『무정』의 교과서 수록 현황

이러한 위상 변화는 이 시기 『무정』에 대한 소설사 논의의 경향과는 괴리가 있다.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1990년대부터 『무정』은 ‘풍속사’와 ‘형식 미학’의 차원에서 그 근대성이 보다 풍성하게 조명되고 있었다. 『무정』이 교육 정전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문학

2007 개정	문학 I	지학사 (최지현)	6. 문학의 소통과 매체 확장 01. 문학의 소통	단원 도입부의 자료로 86회 일부 인용
2009 개정	문학	미래엔 (윤여탁)	IV. 한국 문학의 흐름 3. 개화기 이후의 근대 문학	‘학습활동’의 자료로 124회 일부 인용
2009 개정	문학	비상 (한철우)	II.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2. 한국 문학의 역사	‘학습활동’의 자료로 124회 일부 인용
2009 개정	문학	지학사 (권영민)	3.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4] 근·현대 문학(1)	‘학습활동’의 자료로 124회 일부 인용

[표 3] 교과서의 학습 자료로서 『무정』의 활용 현황

사적 평가, 즉 ‘최초의 근대적 장편 소설’이라는 인식은 ‘연애’, ‘교양’, ‘서술 태도’, ‘근대적 독자를 고려한 문체 선택’ 등을 근거로 보다 확장되고 세밀하게 규명되었다.<sup>30)</sup> 그럼에도 『무정』이 교육 정전의 위상을 유지하지 못한 것은 교육과정 상의 변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

구체적으로, 첫째,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 문학사 및 갈래론 관련 영역이 축소되었다. 6차 교육과정까지 문학교육은 주로 실체 중심의 문학관과 속성 중심의 문학관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상 〈문학〉 과목의 주요 학습 내용도 문학사적 가치를 인정 받는 작품을 갈래 특성에 맞게 분석하는 것으로 ‘문학의 갈래’, ‘문학 작품 구성 요소들의 기능 및 관계’, ‘한국 문학의 흐름과 성격’ 등이 교과서에 큰 비중으로 실행되었다. 이러한 구도에서 『무정』은 문학사와 갈래론 관련 성취기준을 위한 주요 제재로 선택되었고 정전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은 행위 중심의 문학관, 문학 문화론, 문학에 대한 윤리적 접근 등을 수용하면서 문학 과목의 내용 체계를 보다 다양하게 구성한다. 7차 교육과정은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생산’, ‘문학과 문화’,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로 내용 체계를 재구조화하였고 이를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학의 성격’, ‘문학 활동’, ‘문학의 위상’, ‘문학과 삶’으로 발전시킨다. 이러한 내용 체계에서 문학 과목의 내용은 ‘창작’, ‘매체’, ‘다문화’, ‘청소년 문학’ 등 기존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거나 소략하게 제시한 내용까지 포괄한다. 반면 기존의 중요 내용이었던 문학사, 갈래론 등은 그 비중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변화는 곧 교과서의 단원 구성과 제재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문학사 단원의 경우 그 시기 구분이 단순해지고 수록 작품의

30) 황정현, 앞의 책, 114-131면.



수도 줄게 된다. 구체적으로, 6차 교육과정 <문학> 교과서의 문학사 대단원은 개화기부터 해방 이전까지의 시기를 2~3개의 단원으로 나눠 5편 내외의 현대소설을 본문 제재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7차 교육과정은 동일한 시기를 1~2개의 단원으로 나눠 2편 내외의 현대소설을 다루게 되며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대부분 개화기부터 해방 이전까지의 시기를 통합한 한 개의 단원에 한 개의 현대소설을 제시하는 것으로 축소된다.

이러한 체계에서 문학사의 각 시기를 대표하던 작품 중 일부가 정전의 위상을 잃기 시작한다. 교과서 집필자는 개화기부터 해방까지의 시기를 대표하는 ‘단 하나의 작품’을 선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된 작품은 11종의 교과서 중 6종에 실린 「만세전」을 비롯하여 『태평천하』, 『삼대』, 「달밤」, 「날개」 등이다. 해방 이전 민족의 수난과 파행적인 근대화의 관정을 완성도 있게 형상화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대표 작품을 선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정』은 일제 강점기를 대표하는 제재로서 선택을 받지 못한다.

문학 교과서에서 『무정』이 정전의 위상을 유지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문학사 이외의 성취기준과 연관을 맺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살핀 것처럼 『무정』의 정전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문학사 관련 성취기준이었다. 『무정』은 문학사, 특히 1910년대의 문학과 시대상을 이해하기 위한 제재였다. 하지만 『무정』이 문학사 관련 성취기준만을 위한 제재는 아니었다. 이미 4차 교육과정에서 『무정』은 단편소설과 대비되는 장편소설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제재였고 5차, 6차 교육과정에서는 소설의 요소, 특히 전형적 인물, 입체적 인물 등 인물의 개념 및 유형을 가르치기 위해 제재로 선택되었다. 한편 7차 교육과정에서는 “② 주체와 맥락에 따라 작품의 가치를 평가한다.”, 즉 문학의 가치화와 관련된 성취기준, 2009 개

정 교육과정에서는 “매체와 관련된 작가·작품·독자, 생산·유통·수용의 특성을 이해한다.”와 같은 문학과 매체 관련 성취기준을 위한 제재로 선택되었다.

문제는 『무정』이 이들 성취기준을 위한 제재로서의 위상을 안정적으로 강화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교육과정기별로 장편소설, 소설의 인물, 문학의 가치화, 매체 등 새로운 성취기준의 제재로 선택되었지만 그러한 연관이 차기 교육과정으로 지속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무정』이 이들 성취기준을 위한 제재로서 부적합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해당 성취기준에 대한 교과서 집필자의 해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무정』은 4종의 문학 교과서에 실렸는데 이중 두 종은 문학사의 성취기준, 다른 두 종은 문학과 매체의 성취기준을 위한 제재였다. 이때 후자의 경우는 『무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근대적 장편 소설이라는 위상이 아닌 신문연재소설로서의 성공에 주목한 것이다. 이러한 제재화는 새롭고 적절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독자를 호명하며 작가가 개입하는 『무정』의 86회, 양건식의 『『무정』을 독하고』, 김기전이 쓴 『『무정』 122회를 독하다』, 등 『무정』의 소통론적 실체가 작품 내외에 있으며 소설사 연구에서도 무정에 대한 이러한 접근이 근대계몽기의 신문과 잡지 등 매체 연구와 맞물려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정』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학 교과서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대신 『토지』, 『서편제』, 『내 마음의 풍금』 등 영화, 드라마, 만화로 각색된 작품이 문학과 매체를 위한 제재로 선택된다. 이는 교과서 집필자가 문학과 매체의 성취기준에 대해 작품의 유통이나 독자의 반응에 초점을 둔 소통론보다는 다양한 언어 양식의 의미화 양상에 초점을 둔 기호론의 차원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 정전으로서 『무정』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지만 해설, 수록 부분, 학습활동 구성의 차원에서 이전 시기와는 구분되는 변화를 보인다. 우선 작품 해설에서 주목할 점은 『무정』의 대중성과 관련된 기술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흥미성을 비롯한 『무정』의 대중성은 이 작품의 새로움이 드러나는 중요한 범주로 평가되어 왔는데 이전 시기의 교과서 해설에서는 언급되지 않거나 이념성에 비해 주변적인 요소로 설명되었다. 하지만 7차 교육과정기부터 흥미성은 다양한 층위에서 『무정』의 중요한 특성으로 설명된다.

(바) 『무정』의 계몽성과 대중성 : 이광수는 자신이 『무정』을 쓴 의도에 대해, “내가 『무정』을 쓸 때 의도한 것은, 그 시대의 조선 청년의 이상과 고민, 그리고 조선 청년의 진로에 대한 암시를 주자는 것이었다.”고 술회한 바 있다. 그는 『무정』에서 민족주의 사상, 근대 문명에 대한 지향 의식, 신교육 사상을 바탕으로 일체의 봉건적 유습을 극복하려는 의식을 보였는데, 이것은 계몽주의와 서로 통한다. 결말에서 인물들이 민족의 미래에 대한 포부를 밝힌 것은 작가의 그러한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또 이광수의 대부분의 작품들에서처럼, 『무정』도 ‘형식-영채-선형’의 삼각 관계가 중심 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애정 갈등을 야기시키는 데에 가장 효과적이고 따라서 대중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무정』이 당대에 그렇게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삼각 애정 갈등에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sup>31)</sup>

(사) 이 작품은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1917년 1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연재했던 이광수의 첫 장편소설이다. 이 작품은 작가의 대표작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로 평가되고 있다. 작가가 드러내고 있는 사상은 독립을 위해 먼저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계몽

31) 박경신 외, 『문학(하)』, 금성출판, 2003, 246면.

주의와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작품은 인물 면에서 고전 소설의 주인공처럼 봉건적 의식에 사로잡힌 채 고통을 겪는 박영채와 개화사상의 세계를 받은 근대적 인물 이형식을 대립시키면서 과도기의 정신적 혼란을 그려 냈다. 자유연애 사상과 삼각관계가 들어 있어서 독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자, 어떤 사람들은 젊은이들에게 끼칠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연재를 중단하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은 신문이라는 매체를 중심으로 작가·작품·독자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sup>32)</sup>

(바)는 7차 교육과정의 문학 교과서 중 하나로, 『무정』의 특성을 계몽성과 함께 대중성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무정』이 당대 대중들의 관심을 끈 인기작이었음을 소개하면서 당시 대중의 관심은 인물 간의 애정 갈등과 이를 촉발한 삼각관계에 있었음을 강조한다. “『무정』의 계몽성과 대중성”이라는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무정』에 대한 교과서 해설에서 대중성은 이제 이념성만큼이나 중요한 특성으로 자리매김한다. 한편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문학 교과서 중 하나인 (사)는 『무정』의 대중성을 흥미 요소의 차원에서 수용과 유통의 차원으로 확장하여 설명하고 있다. 『무정』에 대한 독서 대중의 열렬한 반응이 인기뿐만 아니라 거부나 항의까지 포함하며 여기에는 연재소설이라는 신문 매체의 특성이 관여하고 있음을 환기한다. 이상의 해설에서 『무정』은 최초의 근대적 장편 소설이면서 신문 매체에 기반을 둔 대중소설로 부각된다. 학습자는 『무정』을 바탕으로 1910년대의 문학사적 특성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작가·작품·독자의 관계”를 생생하게 파악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무정』의 수록 부분과 학습활동의 구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록 부분의 경우 『무정』의 이념성을 대표하는 124

32) 정재찬 외, 『문학 I』, 천재교과서, 2012, 358면.

회의 편향에서 벗어나 대중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연재분을 선택하였으며 학습활동의 경우 김기전, 최독견 등 당대 독자의 글을 자료로 제시하기 시작한다.

(아) 4. 이 작품이 <매일신보>에 연재되던 때에는 하루만 연재가 안 되어도 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한다 이렇게 『무정』이 당시 독자들에게 인기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다각도로 생각하여 보자.<sup>33)</sup>

(자) 4. 다음은 작가·작품·독자의 관계를 보여 주는 당시 독자의 독후감의 일부이다. 이 글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무정’ 122회를 독하다가 (중략)

(1) 작가와 독자의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당시와 오늘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탐구해 보자.

(2) 오늘날 인기와 영향력 면에서 당시의 신문 연재소설과 비교할 만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자.<sup>34)</sup>

(차) 2. ‘무정’은 신문 연재소설이다. 신문 매체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신문 연재소설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이 ‘무정’의 111회와 112회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신문 연재소설은 신문을 구독하게 하는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독자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좁은 지면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날에도 독자들이 이 신문을 구독하고 싶도록 흥미를 유지할 기술이 필요하다.

33) 박경신 외, 앞의 책, 247면.

34) 정재찬 외, 앞의 책, 356면.

(2) 신문은 온갖 계층이 두로 접하는 매체인 만큼 사회 공동의 관심사를 반영하게 마련이다. ‘무정’은 어떤 점에서 그러한 대중적 관심에 부합하는지, ‘무정’에 대한 당시의 평가를 보여주는 다음 글을 읽고 생각해 보자.

‘무정’이 1차 “매일신보” 지상에 연재될 때에 독자들이 목마른 끝에 청량제를 만난 듯이 심독한 것은 잇을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후략)<sup>35)</sup>

(아)는 7차 교육과정의 문학 교과서 중 하나로, 『무정』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은 이유를 추론하는 활동이다. 『무정』의 대중성을 이해하는 활동은 작품 해설의 변화와 맞물려 이 시기부터 등장한 특징적인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이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화된 것이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문학〉 교과서에 제시된 (자)와 (차)이다. 두 활동 모두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무정』의 실제적 소통 양상을 탐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자)의 경우 본문에는 『무정』의 122회분과 함께 이 수록분이 실린 매일신보 1917년 6월 7일자의 신문 사진을 제시하였으며 학습 활동에는 매일신보 1917년 6월 15일자에 실린 김기전의 「‘무정’ 122회를 독하다가」를 수록하였다. 반면 (차)에서는 본문에 『무정』의 111, 112회 연재분을 수록하면서 연재소설의 장 분할 전략, 최독건의 「신문소설잡초」(『철필』, 1930.7.)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자는 『무정』의 대중적 인기를 당대 독자의 반응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반응의 원인을 『무정』의 서사적 요소뿐만 아니라 신문 연재라는 매체적 특성에서 파악할 수 있다. 수록 부분과 학습활동의 이러한 구성은 『무정』의 매체적 특성과 대중적 인기를 요약적으로 설명한 이전 시기와는 달리 작품과 자료의 중첩적 읽기를 통해 학습자가 직접 그 실재를 확인하고 탐구하게 한다는 점에서 (아)의

35) 권영민 외, 『문학 I』, 지학사, 2012, 178-179면.

사례보다 진일보한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 5. 시사점

이상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무정』은 <문학> 교과서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규정되었고 정전으로서의 위상도 변화하였다. 2, 3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는 『무정』의 과도기적 성격에 주목하면서 고전 문학의 말미에 두었고 126회분을 중심으로 신소설과의 연관성이나 계몽적 성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학습 활동을 제시하였다. 문학 교과서에서 『무정』이 최초의 근대적 장편 소설로 규정된 것은 4차 교육과정 이후의 일로, 전래의 소설과 차별되는 『무정』의 근대적 성격을 찾아 그 특성, 의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 학습의 초점을 둔다. 『무정』은 이제 124회가 웅변하는 계몽주의와 민족주의가 결합된 소설로 간주되며 6차 교육과정까지 정전의 위상을 확고히 한다. 7차 교육과정부터 문학 교과서는 『무정』의 또 다른 특성인 대중소설로서의 면모를 부각한다. 학습자는 ‘자유연애’, ‘삼각관계’라는 작품 내적 흥미 요소뿐만 아니라 신문 연재, 독자의 반응 등 『무정』의 소통적 차원을 탐구한다. 하지만 이 시기 정전으로서의 위상은 크게 위축되는데 리얼리즘, 모더니즘 계열의 대표작에 밀려 일제강점기의 문학사를 이해하는 단원의 제재로 더 이상 선택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취 기준과의 연계 또한 안정적으로 지속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전화 양상이 『무정』의 학습 및 문학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작품과 작가는 문학교육의 존재 근거 중 하나이며 이 광수와 『무정』은 한국근대문학을 논하는 자리에서 제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무정』의 정전화에 대한 논의가 『무정』이 더 이상 문학 교

과서에 실리지 않는 현 상황을 비판하며 『무정』의 재수록이나 위상 강화에 대한 촉구로 귀결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 『무정』을 포함한 문학 작품은 지식, 경험, 수행, 태도로 구성되는 문학교육의 내용 요소 중 하나이며 학습자에게 읽힐 작품의 선정은 문학교육의 목표를 고려한 교육적 선택이다. 이런 점에서 『무정』의 정전화는 『무정』의 교과서 수록 여부나 정전 위상의 회복이라는 문제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무정』의 교재화 양상에 비춰 『무정』의 퇴조가 환기하는 문학교육의 쟁점과 요구를 점검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문학 과목의 체제에서 『무정』의 새로운 교재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무정』의 퇴조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로 대변되는 문학교육의 제도적 실천이 당면한 과제를 환기한다. 그 첫 번째가 문학사 교육의 문제이다. 『무정』의 정전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문학사 교육이다. 『무정』은 문학사 관련 성취기준을 위한 제재로 선택되면서 교과서에 수록되기 시작하고 최초의 근대적 장편 소설이자 1910년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정전의 위상을 강화한다. 『무정』을 문학 교과서에서 더 이상 보기 어렵게 된 것도 바로 문학사 단원의 제재로 선택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문학사 교육의 위상 약화가 맞물려 있다. 한때 문학교육은 곧 문학사 교육이었을 만큼 문학사의 이해는 중등학교 문학교육의 핵심적 목표였고 문학 과목의 내용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문학교육의 관점이 다변화되고 그에 따라 교육과정에서 문학 과목의 내용 체계가 다층적으로 설정되면서 문학사 교육의 비중은 점차 축소된다. 기존에 세분화되었던 문학사의 여러 시기가 하나의 단위로 통합되어 한 단원을 구성하고 각 단원의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도 장르별로 한 작품만 배정된다. 이 과정에서 『무정』은 1920·30년대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대표 작품에 밀려 개화기부터 일제 강점



기까지의 시기를 대표하는 제재로 선택되지 못한다.

문제는 단 하나의 대표작을 읽는 것만으로는 해당 시기의 문학사적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문학사의 전개 과정이 설명문의 형태로 작품에 앞서 제시된다. 하지만 문학사 교육의 목표는 그러한 문학사의 지식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 “작품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 혹은 그 관계를 주체적으로 형성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sup>36)</sup> 최근 문학사 교육의 논의에서 학습자의 체험적 탐구, 즉 복수의 작품을 직접 읽고 비교하면서 그 관계와 의미를 추적하는 활동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sup>37)</sup> 이러한 탐구 활동에서 작품들 사이의 연속성과 시대 현실과의 상관성은 작품 읽기의 배경 지식이 아니라 학습자의 탐구 대상이어야 한다.

문학 교과서의 문학사 단원이 탐구 활동을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연속성과 상관성을 탐색할 수 있는 복수의 작품과 그에 대한 관계 파악의 활동이 전면에 부각될 것이다. 『무정』은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의 경계에 놓인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탐구 활동의 제재로서 적합한 특성을 지닌다. 우선 현실 인식의 차원에서 『무정』은 『혈의 누』와 『만세전』과 함께 탐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혈의 누』에서 구완서와 김옥련이 혼인 언론을 하는 장면, 『무정』에서 삼량진 수해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123~125회의 장면, 『만세전』에서 이 인화가 찾간 풍경을 보며 조선을 공동묘지에 비유하는 장면은 모두 당대 조선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응 태도가 드러난다. 또한 이들 장면은 공통적으로 조선이라는 내부 세계와 일본 또는 미국이라는 외부 세계 사이를 오가는 여정에 포함되는데 각각의 작품에서 여정은 부국강병의 길, 문명개화의 길, 조선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길

36) 김정우, 「학습자 중심의 문학사 교육 연구」, 『국어국문학』142권, 국어국문학회, 2006, 404면.

37) 조하연, 「문학사적 안목 형성을 위한 문학사교육의 내용 개선 방향 연구」, 『새국어교육』97권, 한국국어교육학회, 2013, 521-528면.

로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다.<sup>38)</sup> 이들 장면을 병렬적으로 제시한 후 학습자가 근대화 초기의 현실 인식과 길의 모티프를 중심으로 작품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도록 교과서의 단원을 구성할 수 있다.<sup>39)</sup>

한편 『무정』은 근대적 문체의 확립에도 기여한 소설이다. 이 점에 주목하여 『무정』을 고전 소설, 이인직의 『혈의 누』, 김동인의 『약한자의 슬픔』 등과 함께 제시하면서 학습자가 문체적 차원에서 작품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게 할 수 있다. ‘그/그녀’라는 대명사의 사용 여부, 과거형 종결어미의 사용 정도 등이 비교의 초점이 될 수 있다. 이는 삼인칭 대명사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현재형 어미와 함께 과거형 어미를 활용하고 있는 『무정』이 근대적 문체의 형성 과정에 놓인 위치와 다른 소설과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이다.

『무정』의 퇴조가 시사하는 두 번째 과제는 문학교육에서 매체론적 접근의 문제이다. 교육과정의 문학 과목에서 매체 관련 교육 내용이 등장한 것은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이다. 문학 작품이 “서적의 형태뿐만 아니라, 언어로써 소통되는 라디오, 영화, TV, 애니메이션, 인터넷, 휴대 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소통”된다는 점을 주목한 것으로, 그 교육 내용은 크게 기호론에 입각하여 작품의 언어 양식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과 소통론에 입각하여 매체에 따른 작가·작품·독자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는 것으로 나뉜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전자와 후자를 모두 성취기준으로 제시하며 『무정』은 후자의 성취기준과 연계되면서 교재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다.

하지만 『무정』의 이러한 교재화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속

38)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1』, 민음사, 2002, 228-229면.

39) 이런 점에서 문학 교과서에서 학습활동으로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 『무정』과 『만세전』의 비교는 주목할 만하다. 이 활동은 5차 교육과정의 문학 교과서에서 처음 제시되는데 이때는 『무정』을 위한 학습활동에 『만세전』과의 비교를 지시하는 방식이었다(우한용 외, 『문학』, 동아출판사, 1990, 231면). 하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무정』은 『만세전』을 위한 학습 활동의 비교 자료로 제시되고 있다.

되지 못한다. 문학 과목의 성취기준을 줄이는 과정에서 매체 관련 성취기준을 하나의 성취기준으로 통합하였고 모든 문학 교과서가 통합된 성취기준을 기호론적 시각에서 실행하였기 때문이다. ‘문학과 매체’ 단원은 원작 소설을 각색한 영화, 드라마, 만화를 제재로 원작과 각색 작품의 비교를 통해 다양한 기호의 의미화 양상을 분석하게 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는 다매체 시대로 접어들면서 원작의 다양한 매체 변용이 활성화된 오늘날 학습자의 언어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단원 구성은 기호론적 관점에만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과 매체의 관계에 대한 탐구를 제한한다. 문학을 매체의 차원에서 탐구한다는 것은 복합적인 매체 언어의 의미화 양상을 텍스트 내적으로 분석하는 것과 함께 신문, 방송, 영화, 인터넷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창작자와 향유자 간의 소통 방식에 주목하는 것이고 각각의 방식에 따른 생산, 유통, 수용의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학습자가 문학 활동을 위해 특정한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하게 하고 자신의 소통 위치와 맥락을 고려하여 문학 활동을 점검하고 조정하게 한다. 이는 기호론적 접근이 내재한 탈맥락화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점이기도 하다.

『무정』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연재 당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학습자가 오늘날의 매체 환경과 비교하면서 매체의 소통 방식과 현상을 탐구하는 데 유용한 제재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기의 문학 교과서는 『무정』의 인기, 대중 독자의 반응, 연재 전략 등을 중심으로 학습자가 『무정』의 소통 현상과 방식을 탐구하게 하였다. 이러한 학습 활동은 『무정』의 소통 현상과 문체 선택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활동으로 심화할 수 있다. 이 광수는 『무정』을 국한문혼용체로 집필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순국문체로 썼다. 이는 독자층을 고려하여 언어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결과이다. 즉 기획 단계에서는 “독자를 교육 있는 청년계”로 설정하고 이들을 계몽하고자 국한문 혼용체의 사용을 계획했지만 연재 단계에서는 일반 대중까지 독자층으로 상정하면서 순국문체를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한다면 『무정』의 연재 예정 및 기획 의도를 소개한 기사(『文壇의 新試驗』, 『매일신보』, 1916.12.26.), 『무정』의 문체 변경을 해명한 기사(『小說 文體變更에 對하여』, 『매일신보』, 1917.1.1.)를 『무정』과 함께 제시한 후 『무정』의 문체 변경을 작가의 언어 선택, 매체, 독자의 반응 간의 관계에서 이해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소통론과 기호론 양편에서 문학과 매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활동이다.

한편, 『무정』이 지닌 정전의 가치를 인정하고 학습자에게 지속적으로 읽혀야 한다면 <문학> 과목의 변화와 맞물린 새로운 교재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한편으로 정전으로서 『무정』의 위상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학> 과목의 새로운 내용과 방법을 매개로 그간의 교육이 지닌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가장 최근의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한 학기 한 권 읽기’이다.

“한 학기에 한 권, 학년(군) 수준과 학습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책을 긴 호흡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서 준비와 독서 시간 확보 등의 물리적 여건을 조성하고, 읽고, 생각을 나누고, 쓰는 통합적인 독서 활동을 학습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sup>40)</sup>

<문학> 과목의 ‘교수 학습의 방향’에 제시된 이 방법은 학습자가 스스로 작품을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는 한편 작품을 다층적으로 접근하도록 읽기, 쓰기, 토론하기, 성찰하기 등

40)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어과 교육과정』, 2015, 132면.

다양한 활동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학> 과목에서 이러한 읽기는 장편 소설 전체를 다양한 시선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문학 교과서의 경우 한정된 지면으로 인해 장편 소설보다는 단편 소설을 제재로 선호하였고 장편 소설을 선택하더라도 일부 내용을 신는 부분 수록이 전부였다. 이는 한 번도 작품 전체가 수록된 적이 없는 『무정』의 교재화 양상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시기나 출판사에 따라 수록 부분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전체 126장 중 짧게는 한 장부터 길게는 네 장 정도만을 수록하였고 이마저도 학습 목표에 부합하도록 읽기의 방향이 제한되었다. 장편 소설의 교육적 가치와 부분 수록의 문제점은 문학교육의 담론에서 일찍부터 논의되었지만 수업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위상으로 인해 지금까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다.<sup>41)</sup>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하나의 작품을 완독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을 보장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교과서에 실린 『무정』이 아니라 단행본 『무정』을 1장부터 126장까지 충분한 시간을 들여 긴 호흡으로 읽을 수 있다. 게다가 학습 목표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무정』을 보다 다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무정』은 한 교과서 내에서 하나의 성취기준과 연계되었고 그로 인해 학습자는 『무정』을 문학사나 매체론 등 특정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작품을 특정한 성취기준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 학습 목표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지향하는데 이러한 특성이 충분한 독서 시간과 맞물린다면 『무정』은 1910년대와의 상관성, 다른 작품과의 연관성, 신문연재소설로서의 매체적 특

41) 우한용, 「장편소설 교육의 방법 - 고등학교에서 장편소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배달말교육』8권, 배달말교육학회, 1990, 127-152면.

성, 사랑·연애·교육·교양 등 근대성의 재현 등 다양한 층위에서 읽힐 수 있다.

한편 『무정』은 새롭게 도입된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도 가치 있는 제재이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학습자가 ‘한 학기’라는 장기적인 학습 시간 동안 ‘하나의 작품’을 ‘풍성하게 읽는 데’ 방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작품의 주제, 특성, 맥락에 기반을 둔 다양한 읽기 방식을 체계적으로 통합한 학습 활동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정』은 어떤 소설보다 교과서에 오랫동안 실렸고 다수의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으로,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다수의 학습 활동이 구안되어 왔다. 『무정』의 교재화를 통해 축적된 이러한 활동은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제재로 『무정』을 선택할 교사에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기획하고 구안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무정』은 발표 후 한 세기를 맞이하는 작품이면서 동시에 제도권의 문학교육에 수용된 지 반세기가 된 작품이다. 문학사의 차원에서 최초의 근대적 장편 소설이지만 문학교육의 차원에서는 현대소설의 어떤 다른 작품보다도 앞서서 읽히고 가르친 대표적 정전인 것이다. 하지만 정전으로서 『무정』의 위상과 특성이 온전히 논의된 적은 없다. 『무정』을 읽고 그 의미를 탐색하는 중요 공간 중 하나가 문학교실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정』에 대한 문학교육의 정전화는 한편으로 『무정』 읽기와 관련된 잊힌 역사를 조명한다는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 앞으로의 『무정』 교육을 위한 역사적 통찰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무정』의 교재화 양상은 정전화가 교육과정의 기획과 교과서의 실행이라는 맥락에서 다수의 작품이 경쟁하고 공존하면서 강화·퇴조하는 생태적 과정임을 시사한다. 『무정』의 정전화는 『혈의 누』와 『만세전』의 정전화와 맞물려 있고 ‘문학과 매체’와 같은 새로

운 성취기준의 도입으로 『토지』, 『서편제』 등 완전히 다른 작품과 나란히 놓이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무정』의 교재화를 다른 작품의 교재화와 비교하면서 공존 및 경쟁 관계를 보다 폭넓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교육부, 『초·중·고등학교 국어과·한문과 교육과정 기준(1946~1997)』, 선명인쇄주식회사, 2002.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국어과 교육과정』, 2009.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국어과 교육과정』, 2011.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어과 교육과정』, 2015.

고형진 외, 『문학Ⅱ』, 천재문화, 2012.

구인환, 『현대문학』, 금성출판사, 1983.

구인환, 『문학』, 한샘, 1990.

구인환 외, 『문학(하)』, 한샘출판(주), 1995.

구인환 외, 『문학(하)』, 교학사, 2003.

권영민, 『문학(하)』, 지학사, 2003.

권영민 외, 『문학 I』, 지학사, 2012.

권영민 외, 『문학』, 지학사, 2015.

김대행 외, 『문학(하)』, 교학사, 1996.

김병국 외, 『문학(하)』, 한국교육미디어, 2003.

김열규 외, 『현대문학』, 동아출판사, 1983.

김윤식 외, 『문학』, 한샘, 1990.

김윤식 외, 『문학(하)』, 한샘 출판사, 1996.

김용직 외, 『문학』, 학습개발, 1990.

김창원 외, 『문학(하)』, 민중서림, 2003.

김홍규, 『문학』, 한샘, 1990.

남미영 외, 『문학(하)』, 동아서적, 1996.

문덕수 외, 『현대문학』, 이우출판사, 1985.

박경신 외, 『문학(상)』, 금성교과서, 1996.



- 박경신 외, 『문학(하)』, 금성출판, 2003.  
 박동규 외, 『문학』, 금성교과서, 1990.  
 박병채, 『우리 고전』, 박영사, 1968.  
 박성의 외, 『고전』, 고려서적주식회사, 1979.  
 박영민 외, 『문학II』, 비상교육, 2012.  
 성기조, 『문학(상)』, 학문사, 1996.  
 오세영 외, 『문학(상)』, 대한교과서, 2003.  
 우한용 외, 『문학』, 동아출판사, 1990.  
 우한용 외, 『문학(상)』, 동아출판사, 1995.  
 우한용 외, 『문학(하)』, 두산, 2003.  
 윤병로 외, 『문학(하)』, 노벨문화사, 1996.  
 윤여탁 외, 『문학II』, 미래엔, 2012.  
 윤여탁 외, 『문학』, 미래엔, 2015.  
 이문규 외, 『문학(하)』, 선영사, 1996.  
 이승원 외, 『문학II』, 신사고, 2012.  
 정재찬 외, 『문학 I』, 천재교과서, 2012.  
 최동호 외, 『문학(상)』, 대한교과서, 1996.  
 최지현 외, 『문학 I』, 지학사, 2012.  
 한계진 외, 『문학(하)』, 대한교과서, 1996.  
 한철우 외, 『문학』, 비상, 2015.

## 2. 논문

- 김근호, 「이태준 소설의 서사 윤리와 소설교육」, 『현대소설연구』54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41-81면.  
 김성진, 「소설교육에서 해석의 다양성 문제 재론」, 『우리말글』42호, 우리말글학회, 2008, 155-180면.  
 김정우, 「학습자 중심의 문학사 교육 연구」, 『국어국문학』142권, 국어국문학회, 2006, 399-430면.  
 김지혜, 「김유정 문학의 교과서 정전화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51권, 현대

- 문학이론학회, 2012, 135-155면.
- 남민우, 「문학교육 목표 변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고등학교 문학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22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119-152면.
- 박상근, 「교과서를 통해 본 <무정> 교육 연구」, 『문학교육학』51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16, 49-80면.
- 방용호, 「文學教育 텍스트로서의 李光洙 小說 研究 - 『無情』과 『開拓者』를 중심으로」, 『인하교육연구』8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02, 203-225면.
- 우한용, 「장편소설 교육의 방법 - 고등학교에서 장편소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 『배달말교육』8권, 배달말교육학회, 1990, 127-152면.
- 정재찬, 「현대시 교육의 지배적 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논문, 1996.
- 정진석, 「소설교육에서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정전화 양상과 개선 방향」, 『문학교육학』46, 한국문학교육학회, 2015, 81-101면.
- 조하연, 「문학사적 안목 형성을 위한 문학사교육의 내용 개선 방향 연구」, 『새국어교육』97권, 한국국어교육학회, 2013, 511-542면.
- 조희정, 「교과서 수록 현대 문학 제재 변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24권, 국어교육학회, 435-481면.
- 차혜영, 「한국 현대소설의 정전화 과정 연구 -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와 지배 이데올로기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18, 돈암어문학회, 2005, 157~181면.
- 최남신, 「『無情』序」, 『청춘』 제15호, 1918, 6-7면.
- 최성윤, 「『무정』 후일담의 소설 교육적 가치」, 『Journal of Korean Culture』23, 한국어문학회국제학술포럼, 2013, 77-102면.
- 황정현, 「이광수 소설 연구사」, 고려대학교 박사 논문, 2009.

### 3. 단행본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1』, 민음사, 2002.
- 권영민, 『한국 현대소설의 이해』, 태학사, 2006.
- 김동인, 「조선근대소설고」, 『김동인전집 6』, 삼중당, 1976.
- 김동인, 「춘원연구」, 김치홍 편, 『김동인 평론 전집』, 삼영사, 1984.

- 김동환, 『교과서 속의 이야기꾼, 김유정』, 김유정학회 편, 『김유정의 귀환』, 소명출판, 2012.
-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론』, 한샘, 1988.
- 김윤식·정호용,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1999.
- 이병기·백철,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57.
- 임화, 『조선신문학사론서설』, 임규찬 편, 『문학사: 임화문학예술전집 2』, 소명출판, 2009.
- 조윤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63.
- 조연현, 『증보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969.
- 조연현, 『한국문학의 현장: 조연현 문학전집 5』, 어문각, 1977.

## &lt;Abstract&gt;

## A Historical Consideration and Improvements on Canon Formation of 『Moo Jeong』 in Literary Education

Jeong, Jin-Seok

This study aims to review transition of canon formation of 『Moo Jeong』 in literary education critically, and find improvement plans. To achieve this, from the 2th national curriculum period that first introduced 『Moo Jeong』 to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period, curriculum, textbooks are examined. As a result, aspects and a logic of canon formation of this work are revealed.

Aspects of canon formation is analyzed in dimensions of achievement standards, units, learning activities and interpretation. As a result, what this paper does quite clearly is that first, Korean language education has strengthened this work's status as an educational canon for literary history education and media approach, second, this work's status has nosedived because of falling behind in the making teaching material and failing to set up relation with new achievement standards.

Historical consideration on canon formation of 『Moo Jeong』 involves literary education's issues and a new possibility of making teaching material. To succeed outcome and overcome the limitations through referring foregoing historical consideration, improvement

plans for canon formation of this work are suggested in terms of literary history education, the media approach to literature and a new reading method of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Key words: Lee Kwang Soo, Moo Jeong, Canon, Making teaching materials, Literary Education, Literary History education, media approach

투 고 일 : 2017년 8월 5일      심 사 일 : 2017년 8월 7일-9월 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9월 9일      수정마감일 : 2017년 9월 18일